

# “전북 농식품 수출 증가세 유지 위해 품목 다양화 · 신시장 개척 전략 수립을”

국주영은 도의원, “도 신선 농산물 수출 전년비 23.6% 감소, 관련 정책 5년 내내 같은 사업에 동일 예산 지원”

전북도 농식품 수출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율도 6.1%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주 의원은 “전북도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4~6개 사업을 동일하게 추진하면서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왔고, 신규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이 유일하다”고 전북도 농식품 수출 관련 정책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전북도는 농식품 수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덧붙여, 국주 의원은 “전북도 농수산물 수출축진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수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농수산물 수출축진협의회도 없다”고 지적하며 “농식품 수출 분야에서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학계, 현장 전문가로 이뤄진 ‘농수산물 수출축진협의회’를 구성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북도 농식품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앞으로 신선 농산물 수출 관련 예산 증액은 물론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의 농식품 수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농식품 수출 전문가, 현장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수출축진협의회를 구성해 농수산물 수출 세계화에 매진하겠다”고 답했다. /유호상 기자



김승환(왼쪽부터) 전북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정휘국 광주시교육감, 정석용 전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북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남하고 있다.

## 여수 실습생 사망사건 쟁점... 국회 교육위 국감

“명백한 인재 · 철저한 재발방지책 수립” 촉구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합시다. 애도의 마음을 담은 묵념과 함께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트에 붙은 파케비 제거 잠수작업 중 숨진 여수 한 특성화고 흥정운 군 사안이 국회 국정감사장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위원들은 교육당국의 부실한 관리·점검을 질타하며 한목소리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교육위 회의실에서 전북교육청과 전남교육청 등 9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 시작에 앞서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안타까운 일이다. 위원장으로서 책

임을 느낀다”며 “푸른 꿈이 허무하게 허망하게 쓰러져 가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다지는 와중에서 국가 사자 전 함께 애도의 마음으로 묵념하자”고 제언했다.

이에 교육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흥 군을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또 한 명의 청년을 떠나보냈다. 사회에 나가 꿈을 펼치고자 부풀어 있었던 아이는 규정을 어겨가며 목숨을 헌내 어른들 때문에 먼 길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인재다. 현장실습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인적교육 지원을 위한 취업전담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계와 산업계의 진심 어린 반성과 협력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학교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이다. 소모품이 아니다.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노동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부상이나 죽음이 돼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국내 디자인산업, 상품경쟁력 강화 핵심”

도의회 농산경위, 전북디자인센터 등 찾아 현장 점검

전북도의회 농산경위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12일 익산시 소재 전북디자인센터와 헤코융합첨유연구원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장의 정황을 점검했다.



지난 2018년 4월에 개소한 전북디자인센터는 전북테크노파크내 특화센터로, 전북도의 산업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도내 기업들의 디자인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운영 현황을 점검한 김철수 위원장(정음 1)은 “국내 디자인산업은 기업의 제품기회, 개발, 유통 등 전 주기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앞으로 잠재적인 디자인 수요를 발굴하고, 도내 기업

의 디자인 활용을 향상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 및 매출증가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농산경위위원회 의원들은 전북도의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보급, 인력 양성, 제품생산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헤코융합첨유연구원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 “건립 중인 전지훈련센터 추진토록 노력”

도의회 문건위, 도 국제양궁장 현장 방문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12일 전북도 국제양궁장을 찾아 조성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장의 정황을 점검했다.



문건위원들은 먼저 주경기장을 찾아 전북도 국제양궁장 조성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금메달 획득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 구슬잡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전북선수단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어, 문건위원들은 보조경기장, 연습경기장, 실내훈련장 등 국제양궁장 내부 시설을 점검하며, 양궁장을 이용하는 선수 및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운영·관리를 당부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국제양궁장이

## “대장동 사건 신속·철저 수사”

문 대통령 ‘진실 규명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

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제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대장동 사건에 대해 거리두기를 해왔다. 청와대는 지난 5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

최영규 도의원, 민주

당대표 1급 포상 영예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창당 기념 행사에서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역발전과 민주당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최 의원은,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반영한 관계 법률 개정 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등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발굴 등에 앞장서왔다.

또한 최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 조례’를 근거로, 도내 유초중고 학생 1인당 4천원의 도서비 지원사업을 반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12일 전주를 방문으로 적시했습니다. 그는 슬로건을 내걸고 찾은 팔복동 소재 (주)대경신전을 찾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 및 경영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 전주경제 심장 팔복동 구석 구석

조지훈 전 전북경진위원장, 중소기업·주민과 소통 이어가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전주 경제의 심장인 팔복동 일대를 구석 구석 누비며 중소기업·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잘 나가는 전주, 속 시원하게 일하는 경제시장”이 되고자 제시한 주요 공약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다.

12일 조 전 원장은 전주를 방문으로 적시했습니다. 그는 슬로건을 내걸고 팔복동 소재 (주)대경신전(대표 김대호)을 방문해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 및 경영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주)대경신전은 지난 2001년 문을 연 뒤 수배전반 에너지저장장치(ESS), 빛담은 집속반,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전북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이끌어 가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 자리에서 김대호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중소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다”며 “무엇보다 인력난이 나날이 가중,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 전 원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대학과 기업이 맺는 계약학과 같은 방법을 확장에 지역 인재를 확보하는 등 청년들이 전주에서도 충분히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을 찾아 근로자들과 소통을 이어갔으며, 팔복예술평가에서는 주민들과 만나 팔복

동 환경개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 전 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1차로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주)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발전협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벤처기업협회 전북협회, 전북여성벤처기업협회, 전북첨단기업협회,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회, 소공인융합협동조합, (사)글로벌 청년수출협회 등의 관계자들과 전주 경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특히, 조 전 원장의 경제 핵심 공약인 ‘팔·반·여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 공영혁신단지’에 대해 기대감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도 운영성 탄소산업진흥원 입주자 대표협의회장, 민형선, 하이하유징 대표, 탄소산업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예비마을 봉장협의회장, 주민들을 만난 뒤 ‘15분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팔복동 일대에 부족한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폈다.

조 전 원장은 1, 2차에 걸쳐 누빈 팔복동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전주 곳곳을 방문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지훈 전 원장은 “전주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시장 최우선에 놓겠다고 선언한 만큼 ‘팔복동’에서부터 전주 누비기를 시작하겠다”며 “1, 2차에 걸쳐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은 물론 전주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를 경제 공약에 잘 녹여내 전주경제 발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 전 원장은 “앞으로도 전주를 방문으로 적시하며 시민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잘 나가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호남고속철도 지반침하 심각

46회의 하자보수 요구에도 발주처 태도 미온적



호남고속철도 46회의 하자보수 요구에도 발주처 태도 미온적

호남고속철도 46회의 하자보수 요구에도 발주처 태도 미온적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근본적인 보수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조치 결과를 내놓았음에도 이처럼 하자보수가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호남고속철도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 잘못 시공한 건설사와 감리회사에 벌점 부과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하자보수이행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부과 못했다”면서 “호남고속철도의 시공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지난 2018년 강릉선 탈선사고처럼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거나 기관이 없다면, 결국은 사고를 당한 국민들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국가철도공단에서 보수를 완료했다는 지점에 대해서도 “허용 침하량 30mm이하 하자 보수를 했다는 공주역 근처 영천역~신영역 구간은 최대 60mm로 하자보수를 했다”면서 “허용 침하량을 넘겨 보수를 한 것은 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이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은열 의원은 “국정감사가 1년이 지난데도 감사원 감사 결과도 10개월이 넘었는데 2km 밖에 근본적인 하자 보수를 못했다”고 지적하면서